

한전부지 태양광발전, 지적사항 이행도 확인

제207회 정기총회 종책질의 의원 9명 총15건 서면 접수 날카로운 질의 쏟아져 눈길

총단의 입법기관인 중앙총회가 15일간을 회기로 제207회 정기회를 지난 1일 개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의 중무행정 및 운영에 관한 날카로운 종책질의가 쏟아졌다. 서면으로 접수된 종책질의는 총무부 5건, 재무부 2건 등 총 15건이고, 질의서를 제출한 중앙총회의원은 9명이다. 이는 205회 임시회와 같은 수준이다. 총무원장선출제도의 논의에 집중했던 206회 임시회 때는 종책질의가 없었다.

우선 중단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광전스님(백양사)은 한전부지 환수활동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하지 않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투쟁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총무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사전협상을 통해 1조7400억원의 공공부담금 납부를 약속받고, 주변 롯데월드, 삼성화재의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의 소요기간과 현재지 차

이가 있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종단은 서울시의 인허가 저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타스님(해인사)은 사찰 주차장 활용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주차공간을 주차용도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여름 햇볕가림막, 겨울 눈·비 차단 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 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사회부는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 설비가 가능한 사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사찰토지를 활용한 발전사업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수익성을 포함한 환경적 측면과 수행환경 보존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회기의 종책질의를 살펴보면, 앞선 회기에서 언급했던 지적사항과 답변에 대해 이행경과와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가 눈에 띈다. 1회성 지적으로 그쳤던 과거와 달리 회기를 달리해 지속적인 질의를 이어감으로써 실질적인 중무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주경스님(수덕사)은 205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가사 제작과 관련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를 내놓았다. 가사 고리에 표기하는 범명과 법계가 밖으로 드러나도록 제작해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후 진행 경과를 물었다. 총무부는 “의견에 따라 현재 의제면 전면개정 실무초안을 작성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204회 정기회 당시 포교대상과 관련한 미흡한 행정처리를 지적했던 종책질의도 재차 확인했다. 주경스님은 “지난해 정기회에서 포교대상의 종정상과 총무원장상의 행정상 미진한 부분의 진행경과에 대해 알려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총무부에 공문으로 상장을 요청해왔던 관계로 포교대상과 관련해 총무부 포상대장에 등재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었으나, 올해는 총무부에 통보를 하고 포상대장에 등재를 시켰다”며 “2011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수상내역은 추후 포상법에 맞게 보고하고 결의를 받아 결정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법계별 대상 인원과 품서한 인원 현황, 중앙총무기관 총무원 파견 현황, 직영사찰 분담금, 중단 미승인 재산처분 현황, 장학금 선발 현황, 폐사지 복원 현황 등의 종책질의가 접수됐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을 구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명대승심’ 속에 답이 있다” (名大乘心)

총무원 예방 문재인 전 대표 ‘난국타개’ 위한 가르침 받아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을 구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국난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왔다”면서 “위기 때마다 잘 극복해 왔는데 다시 한 번 저력을 발휘해 넘긴다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정치권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방법을 찾기 못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무원장

스님은 ‘정무방소 명대승심(政無方所 名大乘心)’의 가르침을 강조하며 “정치권에서는 충분히 해결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명대승심 속에 답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는 서경의 ‘도무방소(道無方所) 명대승심’을 인용한 것으로 변화무쌍한 정치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 대승심을 지키라는 뜻으로 총무원장 스님이 수차례 강조해온 말이다.

이날 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송구스럽다”며 “정치인으로서 각자 자기 입장을 버리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혜가 많은 큰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발이 묶여 있는 각 정당 대표들에 비해 문 전 대표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니 난국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 탄자니아 학교 1000만원 지원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로터스월드가 종단이 건립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농업기술대학 지원을 위해 온정을 보냈다.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스님)는 지난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 지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로터스월드의 기금 전달은 성관스님(사진)의 제20회 만해대상 평화대상 상급 일부를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성관스님으로부터 기금을 전해 받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로터스월드 기금에 써야 할 텐데 아프리카 학교 지원을 위해 동참해 줘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임태규 기자 cheft1@ibulgyo.com

총무원 사업국장에 전문스님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 사업국장에 전문스님이 임명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사업국장 전문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사업국장 전문스님은 동학사 승가대학 및 동국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헌터칼리지(Hunter College)에서 사회학 학사, 뉴욕 롱아일랜드(Long Island University)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개교 110주년 동국대 자축행사 다양

오는 10일 ‘후원의 밤’ 필드로 총무로 영화포럼, 특별전 개최

올해 개교 110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보광스님)가 스님과 재가자, 동문은 물론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자축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오는 10일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영화포럼, 박물관 특별전을 마련했다.

10일 오후5시30분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Thank you 110 Together 2020’ 후원의 밤은 중단 스님들과 후원자, 동문을 초청해 고마움을 전하고 학교 발전에 대한 의지를 모으는 자리다. 이날 진제 종정예하가 영상을 통해 법어를 전하고, 총무원장 자승스님도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다. 각계 인사들의 발전기금 후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극영화과를 통해 유명 연예인을 배출한 대학답게 영화 관련 행사도 준비했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총무로 대한국장에서 ‘응

답하라 총무로 6090- 총무로의 전성기, 한국영화를 돌아보다’라는 주제로 영화포럼을 개최한다. ‘과거를 기억하다’ ‘현재를 재생하다’ ‘미래를 꿈꾸다’ 등 세 가지 테마로 진행되는데, 1960년부터 1990년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및 동국대 신진 영화인들의 우수 단편작 상영과 ‘영화와 역사의 도시공간에서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또 유지나 동국대 교수의 진행으로 신철 영화제작사 신씨네 대표, 영화 ‘아수라’ 감독 김성수 씨, ‘블라인드’ 감독 안상훈 씨가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영화와 역사의 도시공간에서의 대화’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열린다.

이밖에 박물관 특별전도 준비 중이다. 목아 박물관, 명주사고판화박물관, 명인박물관, 가회민화박물관 등 동국대박물관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내 박물관 소장 불교성보물을 한 자리에 모아 9일부터 12월9일까지 ‘서로모아-부처님께 합장’ 특별전을 개최한다.

어현경 기자 eonardo@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11월3일 총무회의)						
	해문스님 성주 서진원	법정스님 청도 죽림사	경홍스님 경산 제석사	창연스님 영현 봉림사	지장스님 신창 화림사	대운스님 창녕 각료암
						
	구파스님 울주 석남사	수종스님 양평 상원사	묘관스님 동두천 중화사	범운스님 포천 흥통사	해공스님 의정부 미륵암	

충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종중을 위한 조계종충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 총무원 일대를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 명단 (2016년 10월19일~2016년 11월1일)

□ 기금 : △공주 동학사(주지 정영스님) 1000만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정목스님) 400만원 △양양 낙산사 흥련암(회주 정념스님) 200만원 △장북관 100만원 △강화 적석사(주지 선암스님) 50만원 △서울 흥천사(주지 정관스님) 50만원 △김봉곡 20만원 △화영회 10만원 △전단향 10만원 △고제선 10만원 △부산 장금선원(주지 원어스님) 10만원 △이병찬 5만원 △박정규 5만원 △김상기 5만원 △김영주 5만원 △김종에 3만원 △최희봉 3만원 △김준연 3만원 △백숙자 2만원 △정주 안설사 2만원 △박해중 1만원 △김미애 1만원 △최철순 1만원 △이순자 5000원. (총 1896만50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2017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 공고

본 종단은 다양한 분야의 승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를 선도하고, 종단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본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종단 장학승' 선발을 공고합니다.

불기2560(2016)년 10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승가교육진흥위원장 자 승
장학위원회 위원장 보 광

■ 선발 개요

1) 선발대상

- ① 국내 장학승 :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종립대학 및 일반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
- ② 해외 장학승 : 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일본, 중국, 인도·동남아, 미국, 유럽 등 전지역)
- ③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 조계종법에 의해 설립·인가된 승가대학원의 전문·연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본종 소속의 승려

2) 자격요건 : 구족계를 수지한 승려로 종원·종범 및 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발인원 및 전공분야

구분	국내·외 일반대학원 장학승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선발 분야	가. 불교학 ○명 - 초기불교 - 선불교	- 대승불교 - 계율(율장·청규)	가. 율학 ○명
	나. 불교사 ○명 - 한국불교사(근·현대) - 중국불교사	- 인도불교사 - 일본불교사	나. 선학 ○명
	다. 불교문화 ○명 불교문화(문화·예술·건축·콘텐츠)		다. 한문불전 ○명
	라. 응용불교학 ○명 - 불교윤리학(생명·생태) - 불교사·철학, 비교종교학, 철학일반, 불교심리학, 사회복지정책	중교법문	라. 초기불전 ○명
	마. 언어학 ○명 불문언어(발리어, 범어, 티베트어, 중국어)	일반언어	마. 중관유식 ○명
	바. 기타 전공(불교학 이외) ○명 문화 · 예술 · 철학 · 법학 · 의학 · 기타		바. 능엄, 화엄 ○명

※ 종단의 교육, 연구의 제분야 중 취약한 '계율', '한국불교사(근·현대)', '불교문화', '종교법' 분야를 우선 선발함

4) 장학금 지급내용

- ① 선발된 장학승에 대해서는 해당 과정(석사 또는 박사) 수료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함.
- ② 장학금은 등록금 및 연구비 등을 포함하여 책정함.

5) 가산점 부여 내용

- ① 4, 5급 승가고시 우수 합격자로 표창 받은자
- ② 교육원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전 및 평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한자
- ③ 현직 교육교육자(상주교수)

■ 제출서류

구분	국내·외 일반대학원 장학승	사찰승가대학원 장학승
제출 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수학기획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④ 재학증명서(진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 ⑤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신청시점까지의 성적증명서) ⑥ 서약서(소정양식) ⑦ 추천서(지도교수 1인의 추천서) ⑧ 재정보증서(은사스님) ⑨ 유언장(종단에 유언장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연구계획서(자기소개서 포함) ③ 수행이력서(종단양식) ④ 재학증명서(진학예정자는 입학 허가서 제출) ⑤ 서약서(소정양식) ⑥ 교육기관장의 추천서 ⑦ 재정보증서(은사스님) ⑧ 유언장(종단에 유언장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 선발에 필요한 제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십시오.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 공지사항(공지번호:2925) ⇨ 2017년도 종단장학승 선발공고

■ 장학승 의무사항

1) 결과보고

- ① 과정 수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및 학위수료증 사본 1부 제출
- ② 학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취득학위증 사본 1부, 논문 2부(외국어 논문은 경우 한글 요약서 첨부) 제출

2) 소임 의무

장학승은 해당 학위 취득 후 '장학금지급및관리에관한령'에 의해 종단이 지정한 곳(중앙총무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찰 등)에서 수행기간 만큼의 소임을 수행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16년 11월 7일(월) ~ 12월 2일(금) (4주간)

■ 결과발표 : 2016년 12월 중(조계종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장학위원회 (교육원)

우)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 E-mail: kanghj@buddhism.or.kr
전화: 02)2011-1812, 팩스: 02)732-4926